

대학생들의 클럽문화가 일상생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구민지 · 김성미 · 박하늘 · 손명희 · 임나연 · 배원식 · 이건철*
경남정보대학교 물리치료과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Club Culture on their Daily Lives and Bodies

Ku Minji, PT · Kim Sungmi, PT · Park Hanule, PT · Son Myunghee · Im Nayoun, PT
Bae Wonsik, PT, MPH · Lee Geoncheol, PT, Ph.D*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bstract

PURPOSE : Club dance is one of the most popular cultures worldwide and is getting popular in Korea over time. However, club still has negative awareness in the country due to the media spreading only harmful aspects of club culture. At any rate, nowadays many young aged people can easily have chances to experience clubs so we tried to find out the bad effects caused by clubs.

METHOD : We conducted a survey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urvey was 500, including both men and women. There are a total of 50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form used by this study and the question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general(18), psychologic-related(7), social-cultural(9), and physical-related(16) questions.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as analyzed via frequency analysis using SPSS.

RESULT : In our survey, most students who had already experienced the club culture tend to go to club once or twice a month, and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feel bored if they were nor able to do so. In terms of social life, most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lower efficiency in working and studying the next day after going to clubs because of fatigue. In physical aspect, club users use then pelvis and lower back a lot while dancing.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experienced muscle soreness, a loss in weight, and changes in their body as a consequence of intense dancing. They complaint pain mostly in lower limbs, so we could find out the fact that legs were primarily used for the club dance.

CONCLUSION : To sum up, the club culture in undergraduate students affects on their daily living and body, and also has good effects as well as bad ones. Therefore, we need to look at the club culture positively and to improve bad effects of club culture.

Key Words : club, dancing, muscle, university student

*교신저자 :

이건철 rptgeon@lycos.co.kr, 051-320-2911

접수일 2013년 10월 25일 | 수정일 2013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9일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클럽 문화가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만큼이나 다양한 방면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대학생들 혹은 그 외 세대들을 초월하면서까지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클럽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서울, 부산, 울산 등을 포함한 전국의 방방곡곡 어떠한 지역에서도 ‘CLUB’이라는 간판이 안 보이는 곳은 없다. 각박하고 힘든 대학생활 속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클럽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서울 SNS 오픈채널, 2012).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이런 문화가 20대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다. 클럽은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20대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혹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하였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배정민 등, 2005).

그러나 클럽문화를 이용할 때 흡연 등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클럽 내에서의 간접흡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클럽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유진 등, 2013). 이처럼 클럽 안을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인공안개와 담배연기가 자욱한 환경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런 곳에서 비흡연자가 있다하여도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오히려 직접흡연보다 더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언론에서는 번번이 나이트클럽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졌다. 클럽을 가는 20대 중 대학생들의 클럽문화가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클럽문화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보통신매체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대해 많이 접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흥업소의 3배를

상회시키는 비행조장효과를 나타내었다(김문조와 윤옥경, 2001).

한편, 클럽에 대한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클럽에 대한 카페, 사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클럽에서의 유행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며 인맥도 쌓아가는 긍정적인 면도 부각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으며 언론에 쏠리는 관심도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얼마 전 어떤 한 연예인은 “돈만 생기면 클럽을 갔다”고 고백하였다(문화저널 21, 2013). 이처럼 클럽도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럽에서의 난투극, 살인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정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춤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댄스 학원도 급증하는 시대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교양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변화를 보면 자신감의 향상, 생활습관 변화, 체력 향상, 스트레스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김이정과 송강영, 2013).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추후 남녀 간의 차이와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인나이트클럽은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유흥공간이자 놀이공간의 하나다(장세길, 2004). 이렇게 클럽문화 하나로 우리는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공감하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클럽문화이기에 쉽게 접할 수 있고 노출된 20대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클럽문화를 이용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클럽문화가 20대 정상 성인들에게 차지하는 비중과 또한 클럽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부산 K대학의 재학생과 부산 지역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4월 15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 남녀 재학생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즉시 수거하거나 재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50문항으로 일반 사항 부분 18문항, 정신적 부분 7문항, 사회·문화적 부분 9문항, 신체적 부분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박용민(2011)의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적 부분을 참고하였고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부분은 스마트폰 의존유형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설문(이유진, 2013)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17명(43.4%), 여자 283명(56.6%)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20세 143명(28.6%), 21~22세 205명(41%), 23~29세 152명(30.4%) 순으로 나타났다. 클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다 51명(10.2%), 많다 82명(16.4%), 보통이다 191명(38.2%), 적다 84명(16.8%), 매우적다 92명(18.4%) 순이었다. 클럽의 유·무는 가본 적이 있다 322명(64.4%), 가본 적이 없다 178명(35.6%)

으로 가본 적이 있다가 많았다. 또한 가본 적이 없는 178명(35.6%) 중 클럽에 가자는 권유를 받은 사람은 115명(64.6%), 받지 않은 사람은 63명(35.4%)으로 나타났다. 가본 적이 없는 178명(35.6%)의 가지 않는 이유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해서 50명(28.1%), 시끄러워서 46명(25.8%), 안 좋은 인식 때문에 39명(21.9%), 사람들이 많아 불편해서 29명(16.3%), 기타 14명(7.9%) 순이었다. 가본 적이 없는 178명(35.6%)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숙면 53명(29.8%), 음식섭취 51명(28.7%), 게임 32명(18%), 운동 22명(12.4%), 기타 20명(11.2%) 순이었다. 가본 적이 없는 178명(35.6%) 중 나중에라도 갈 생각 있다고 답한 사람은 118명(66.3%), 갈 생각 없다고 답한 사람은 60명(33.7%)으로 나타났다. 클럽에 가본 적이 없는 178명(35.6%)을 제외한 처음 클럽에 방문한 나이는 20세 264명(82%), 21~22세 44명(13.7%), 23~29세 14명(4.3%) 순이었다. 가보게 된 계기는 호기심 138명(42.9%), 친구의 권유 156명(48.4%), 기타 28명(8.6%) 순이었다. 한 달에 몇 회 방문하는지는 월 1~2회 219명(68%), 월 3~4회 72명(22.4%), 월 5회 이상 31명(9.6%) 순이었다. 주로 가는 요일은 월~화요일 6명(1.9%), 수~목요일 30명(9.3%), 금요일 195명(60.6%), 토~일요일 91명(28.3%) 순이었다. 주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 동성 280명(87%), 이성 22명(6.8%), 기타 20명(6.2%) 순이었다. 주변에 몇 명이 클럽을 가느냐에 대해서는 없다 6명(1.9%), 1~2명 43명(13.4%), 3~4명 106명(32.9%), 5~6명 67명(20.8%), 7명 이상 100명(31.1%) 순이었다. 입장시간은 21시 미만 28명(8.7%), 22~23시 224명(69.6%), 12~1시 52명(16%), 2시 이후 18명(5.6%) 순이었다.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 6명(1.9%), 2~3시간 83명(25.8%), 4~5시간 132명(41%), 6~8시간 78명(24.2%), 9시간 이상 23명(7.1%) 순이었다. 귀가 시간은 23시 미만 6명(1.9%), 12~1시 47명(14.6%), 2~3시 63명(19.6%), 4~5시 121명(37.6%), 6시 이후 85명(26.4%) 순이었다. 한 달 요금은 4만원 미만 194명(60.2%), 5~10만원 76명(23.6%), 10~15만원 32명(9.9%), 15만원 이상 20명(6.2%) 순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명)	퍼센트(%)
성별	남	217	43.4
	여	283	56.6
연령	20세	143	28.6
	21~22세	205	41
	23~29세	152	30.4
관심의 정도	매우 많다	51	10.2
	많다	82	16.4
	보통이다	191	38.2
	적다	84	16.8
클럽의 유무	매우 적다	92	18.4
	예	322	64.4
	아니오	178	35.6
	권유 받은 적	예	115
가지 않은 이유	아니오	63	35.4
	클럽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해서	50	28.1
	시끄러워서	46	25.8
	안좋은 인식	39	21.9
	사람들이 많아 불편해서	29	16.3
스트레스 해소법	기타	14	7.9
	숙면	53	29.8
	음식섭취	51	28.7
	게임	32	18
	운동	22	12.4
나중이라도 갈 생각	기타	20	11.2
	예	118	66.3
	아니오	60	33.7
방문 나이	20세	264	82
	21~22세	44	13.7
	23~29세	14	4.3
가게 된 계기	호기심	138	42.9
	친구권유	156	48.4
	기타	28	8.6
한 달 방문 횟수	월 1~2회	219	68
	월 3~4회	72	22.4
	월 5회 이상	31	9.6
주로 가는 요일	월~화	6	1.9
	수~목	30	9.3
	금	195	60.6
	토~일	91	28.3
동반하는 사람	동성친구	280	87
	이성친구	22	6.8
	기타	20	6.2
주변에 가는 사람	없다	6	1.9
	1~2명	43	13.4
	3~4명	106	32.9
	5~6명	67	20.8
	7명 이상	100	31.1
입장시간	21시 미만	28	8.7
	22~23시	224	69.6
	12~1시	52	16.1
	2시 이후	18	5.6
이용시간	1시간 미만	6	1.9
	2~3시간	83	25.8
	4~5시간	132	41
	6~8시간	78	24.2
	9시간 이상	23	7.1
귀가시간	23시 미만	6	1.9
	12~1시	47	14.6
	2~3시	63	19.6
	4~5시	121	37.6
한 달 이용요금	6시 이후	85	26.4
	4만원 미만	194	60.2
	5~10만원 미만	76	23.6
	10~15만원 미만	32	9.9
	15만원 이상	20	6.2

2. 연구대상자의 정신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정신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이 클럽에 가지 못한다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45(14%), 그렇다 146명(45.3%), 보통이다 95명(29.5%), 그렇지 않다 14명(4.3%), 전혀 그렇지 않다 22명(6.8%) 이었다. 가보고 싶은 클럽이 있을 때 꼭 가야된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3명(19.6%), 그렇다 65명(20.2%), 보통이다 110명(34.2%), 그렇지 않다 72명(22.4%),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3.7%)로 나타났다. 클럽에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매우 그렇다 32명(9.9%), 그렇다 33명(10.2%), 보통이다 104명(32.3%), 그렇지 않다 79명(24.5%), 전혀 그렇지 않다 74명(23%) 이었다. 마감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진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9명(2.8%), 그렇다 13

명(4%), 보통이다 178명(55.3%), 그렇지 않다 93명(28.9%),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9%) 이었다. 클럽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있게 된다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33명(10.2%), 그렇다 90명(28%), 보통이다 84명(26.1%), 그렇지 않다 32명(9.9%), 전혀 그렇지 않다 83명(25.8%)으로 나타났다. 클럽 이용 후 여운이 오래 남는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20명(6.2%), 그렇다 111명(34.5%), 보통이다 78명(24.2%), 그렇지 않다 34명(10.6%), 전혀 그렇지 않다 79명(24.5%) 이었다. 클럽에서 춤, 패션유행을 모르면 소외감이 든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7명(2.2%), 그렇다 36명(11.2%), 보통이다 92명(28.6%), 그렇지 않다 77명(23.9%), 전혀 그렇지 않다 110명(34.2%) 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정신적 특성

	구 분	인원(명)	퍼센트(%)
가지 못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매우 그렇다	45	14
	그렇다	146	45.3
	보통이다	95	29.5
	그렇지 않다	14	4.3
	전혀 그렇지 않다	22	6.8
가보고 싶은 클럽은 꼭 가야 된다	매우 그렇다	63	19.6
	그렇다	65	20.2
	보통이다	110	34.2
	그렇지 않다	72	22.4
	전혀 그렇지 않다	12	3.7
클럽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 한다	매우 그렇다	32	9.9
	그렇다	33	10.2
	보통이다	104	32.3
	그렇지 않다	79	24.5
	전혀 그렇지 않다	74	23
마감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	매우 그렇다	9	2.8
	그렇다	13	4
	보통이다	178	55.3
	그렇지 않다	93	28.9
	전혀 그렇지 않다	29	9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있게 된다	매우 그렇다	33	10.2
	그렇다	90	28
	보통이다	84	26.1
	그렇지 않다	32	9.9
	전혀 그렇지 않다	83	25.8
클럽 노래나 춤 같은 분위기의 여운이 오래 남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	6.2
	그렇다	111	34.5
	보통이다	78	24.2
	그렇지 않다	34	10.6
	전혀 그렇지 않다	79	24.5
클럽에서의 춤, 패션 같은 유행스타일을 모르면 소외감이 든다	매우 그렇다	7	2.2
	그렇다	36	11.2
	보통이다	92	28.6
	그렇지 않다	77	23.9
	전혀 그렇지 않다	110	34.2

3. 연구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322명(64.4%)의 사회, 문화적 사항으로 클럽을 자주 간다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에 매우 그렇다 14명(4.3%), 그렇다 30명(9.3%), 보통이다 144명(44.7%), 그렇지 않다 79명(24.5%), 전혀 그렇지 않다 55명(17.1%) 이었다. 클럽을 다녀온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에 지장이 있다 187명(58.1%), 지장이 없다 135명(41.9%) 순으로 나타났다. 클럽이 학업 혹은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 40명(12.4%), 많다 108명(33.5%), 보통이다 90명(28%), 적다 77명(23.9%), 매우 적다 7명(2.2%) 이었다. 클럽 이용 후의 숙면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함 14명(4.3%), 3~4시간 56명(71.4%), 5~6시간 90명(28%), 7~8시간 103명(32%), 9시간 이상 59명(18.3%)으로 나타났다. 클럽 이용 다음날의 학교 출결상태는 정상등교 236명(73.3%),

지각 48명(14.9%), 조퇴 19명(5.9%), 결석 15명(4.7%), 기타 4명(1.2%) 순이었다. 또 클럽 관련 카페/사이트에 가입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가입했다 64명(19.9%), 가입 안했다 258명(80.1%)으로 나타났다. 클럽에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 62명(19.3%), 그렇다 129명(40.1%), 보통이다 81명(25.2%), 그렇지 않다 19명(5.9%), 전혀 그렇지 않다 31명(9.6%) 이었다. 그리고 클럽 문화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의 질문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173명(53.7%), 친구들과의 친목 74명(23%),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형성 20명(6.2%), 자유로운 음악 감상 37명(11.5%), 운동의 효과 18명(5.6%)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의 질문에서는 생활의 패턴 깨짐 129명(40.1%), 잦은 술 섭취로 인한 건강 적신호 72명(22.4%), 과도한 소리크기로 인한 청각문제 72명(22.4%), 업무효율이나 학업 성적의 감소 27명(8.4%), 기타 22명(6.8%) 순 이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특성

	구 분	인원(명)	퍼센트(%)
클럽에 자주 간다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14	4.3
	그렇다	30	9.3
	보통이다	144	44.7
	그렇지 않다	79	24.5
	전혀 그렇지 않다	55	17.1
클럽을 다녀온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예	187	58.1
	아니오	135	41.9
클럽이 학업 혹은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매우 많다	40	12.4
	많다	108	33.5
	보통이다	90	28
	적다	77	23.9
	매우 적다	7	2.2
클럽 이용 후의 숙면 시간	숙면을 취하지 못함	14	4.3
	3~4시간	56	17.4
	5~6시간	90	28
	7~8시간	103	32
	9시간 이상	59	18.3
클럽 이용 다음날의 학교 출결상태	정상등교	236	73.3
	지각	48	14.9
	조퇴	19	5.9
	결석	15	4.7
	기타	4	1.2

클럽관련 카페/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다	예	64	19.9
	아니오	258	80.1
클럽에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 되는 것 같다	매우그렇다	62	19.3
	그렇다	129	40.1
	보통이다	81	25.2
	그렇지 않다	19	5.9
	전혀 그렇지 않다	31	9.6
클럽문화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스트레스 해소	173	53.7
	친구들과의 친목	74	23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형성	20	6.2
	자유로운 음악 감상	37	11.5
	운동의 효과	18	5.6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생활의 패턴 깨짐	129	40.1
	잡은 술 섭취로 인한 건강 적신호	72	22.4
	과도한 소리크기로 인한 청각문제	72	22.4
	업무효율이나 학업 성적의 감소	27	8.4
	기타	22	6.8

4.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클럽에 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322명(64.4%)의 신체적 문항에 대해서 클럽에 갈 때 주로 신는 신발의 종류의 대해서는 운동화 162명(50.3%), 구두 116명(36%), 워커 36명(11.2%), 기타 8명(2.5%) 순이었다. 그리고 주로 신는 신발로 인해 신체에 끼치는 영향으로 받지 않는다 114명(35.4%), 발가락/발바닥에 무리가 온다 79명(24.5%), 무릎에 무리가 온다 42명(13%), 허리에 무리가 온다 50명(15.5%), 기타 37명(11.5%) 순이었다. 클럽에서 춤을 격렬하게 추는 편이냐에 대해 격렬하게 춘다 198명(61.5%), 격렬하게 추지 않는다 124명(38.5%)으로 나타났다. 춤을 출 때 가장 많이 쓰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목 33명(10.2%), 어깨 28명(8.7%), 팔 28명(8.7%), 골반/허리 150명(46.6%), 다리 79명(24.5%), 기타 4명(1.2%)순이었다. 춤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1명(12.7%), 그렇다 114명(35.4%), 보통이다 73명(22.7%), 그렇지 않다 68명(21.2%), 전혀 그렇지 않다 26명(8.1%)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항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의 대답으로 체중 감소

68명(21.2%), 유연성 증가 47명(14.6%), 몸이 빠르해짐 49명(15.2%), 무릎/골반/허리의 뒤틀린 느낌 76명(23.6%), 변화가 없다 50명(15.5%), 기타 32명(9.9%)으로 나타났다. 또 클럽 이용 후 가장 통증이 생기는 부위에 대한 사항으로 목 42명(13.6%), 어깨 21명(6.8%), 팔 10명(3.2%), 골반/허리 93명(30.1%), 다리 143명(46.3%), 기타 13명(4%) 순이었다. 클럽 이용 후 자신만의 근육통을 푸는 방법으론 스트레칭 89명(27.6%), 마사지 68명(21.1%), 반신욕 56명(17.4%), 아무것도 안함 101명(31.4%) 기타 8명(2.5%) 순이었다.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가에 관한 질문으로 없다 235명(73%), 뺨 50명(15.5%), 굽힘 26명(8.1%), 부러짐 4명(1.2%), 기타 7명(2.2%)으로 나타났다. 클럽에서 부상을 입게 된다 해도 다시 클럽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21명(6.5%), 그렇다 93명(28.9%), 보통이다 120명(37.3%), 그렇지 않다 26명(8.1%), 전혀 그렇지 않다 62명(19.3%) 순이었다. 클럽에서 큰 노래 소리에 의해 청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4명(4.3%), 그렇다 68명(21.1%), 보통이다 80명(24.8%), 그렇지 않다 98명(30.4%), 전혀 그렇지 않다 62명(19.3%)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시끄러운 클럽노래를 들으면서 균형능력에 이상이 생긴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5명(1.6%), 그렇다 19명(5.9%), 보통이다 45명(14%), 그렇지 않다 157명(48.8%), 전혀 그렇지 않다 96명(29.8%)으로 나타났다. 클럽을 이용하면서 흡연을 하냐는 질문에는 흡연을 한다 131명(40.7%), 흡연을 하지 않는다 191명(59.3%)으로 나타났다. 클럽이용시의 흡연 량에 대해서는 반갑 미만 51명(38.9%), 반 갑 30명(22.9%), 반 갑 이상 27명(20.6%), 한 갑 18명(13.7%), 한 갑 이상 5명(3.8%) 순이었다. 클럽의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 입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피해 입었다

162명(50.5%), 피해 입지 않았다 159명(49.5%)으로 나타났다. 클럽을 가는 비흡연자에게 클럽의 담배연기에 예민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2명(32.5%), 그렇다 51명(26.7%), 보통이다 47명(24.6%), 그렇지 않다 23명(12%), 전혀 그렇지 않다 8명(4.2%)으로 나타났다. 또 클럽을 가는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에 예민해도 클럽을 가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3명(6.8%), 그렇다 93명(48.7%), 보통이다 65명(34%), 그렇지 않다 12명(6.3%), 전혀 그렇지 않다 8명(4.2%)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구 분	인원(명)	퍼센트(%)
클럽에 갈 때 주로 신는 신발의 종류	운동화	162	50.3
	구두	116	36
	워커	36	11.2
	기타	8	2.5
주로 신는 신발로 인해 신체에 끼치는 영향	받지 않는다	114	35.4
	발가락/발바닥에 무리가 온다	79	24.5
	무릎에 무리가 온다	42	13
	허리에 무리가 온다	50	15.5
	기타	37	11.5
클럽에서 춤을 격렬하게 추는 편이다	예	198	61.5
	아니오	124	38.5
춤 출때 가장 많이 쓰는 신체의 부위	목	33	10.2
	어깨	28	8.7
	팔	28	8.7
	골반/허리	150	46.6
	다리	79	24.5
춤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있다	기타	4	1.2
	매우 그렇다	41	12.7
	그렇다	114	35.4
	보통이다	73	22.7
	그렇지 않다	68	21.1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나	전혀 그렇지 않다	26	8.1
	체중 감소	68	21.1
	유연성 증가	47	14.6
	몸이 빠근해짐	49	15.2
	무릎, 골반, 허리의 뒤틀린 느낌	76	23.6
	변화가 없다	50	15.5
클럽 이용 후 가장 통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	기타	32	9.9
	목	42	13
	어깨	21	6.5
	팔	10	3.1
	골반/허리	93	28.9
	다리	143	44.4
	기타	13	4

클럽 이용 후 자신만의 근육통을 푸는 방법	스트레칭	89	27.6
	마사지	68	21.1
	반신욕	56	17.4
	아무것도 안함	101	31.4
	기타	8	2.5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없다	235	73
	뺨	50	15.5
	굵힘	26	8.1
	부러짐	4	1.2
	기타	7	2.2
클럽에서 부상을 입게 된다 해도 또 다시 클럽에 가고 싶다	매우 그렇다	21	6.5
	그렇다	93	28.9
	보통이다	120	37.3
	그렇지 않다	26	8.1
	전혀 그렇지 않다	62	19.3
클럽에서 큰 노래 소리에 의해 청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	14	4.3
	그렇다	68	21.1
	보통이다	80	24.8
	그렇지 않다	98	30.4
	전혀 그렇지 않다	62	19.3
시끄러운 클럽노래를 들으면서 균형능력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매우 그렇다	5	1.6
	그렇다	19	5.9
	보통이다	45	14
	그렇지 않다	157	48.8
	전혀 그렇지 않다	96	29.8
클럽을 이용하면서 흡연을 한다	예	131	40.7
	아니오	191	59.3
클럽이용시의 흡연 량	반 갑 미만	51	38.9
	반 갑	30	22.9
	반 갑 이상	27	20.6
	한 갑	18	13.7
	한 갑 이상	5	3.8
클럽의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 입은 적이 있다	예	162	50.5
	아니오	159	49.5
(비흡연자) 클럽의 담배연기 혹은 냄새에 예민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62	32.5
	그렇다	51	26.7
	보통이다	47	24.6
	그렇지 않다	23	12
	전혀 그렇지 않다	8	4.2
(비흡연자) 담배연기 혹은 냄새에 민감해도 클럽을 간다	매우 그렇다	13	6.8
	그렇다	93	48.7
	보통이다	65	34
	그렇지 않다	12	6.3
	전혀 그렇지 않다	8	4.2

IV. 고 찰

본 연구는 20대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클럽문화를 이용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클럽문화가 20대 정상 성인들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클럽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장세길(2004)의 연구에서는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나이트클럽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이 아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김이정과 송강영(2013)의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활동이 학업성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이유는 자신감 향상, 생활습관의 변화, 스트레스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 문화적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과 일상생활 패턴의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빈도를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클럽문화가 신체적 부분에서는 하지의 통증과 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또한 신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의 차이가 있었고, 클럽문화가 광범위하지만 본 설문지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라 클럽문화에 대한 모든 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제한점을 나타낸다.

V. 결 론

본 연구는 클럽문화가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신적, 사회·문화적, 신체적 사항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신체적 영향의 자료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500명의 대상자 중 322명이 클럽을 가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178명은 가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클럽을 이용해 보지 못한 학생

들에게 이용해 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시끄럽고, 클럽의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선뜻 가보지 못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대다수 이었다.

일반적, 정신적 특성에서 클럽에 가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월 1~2회의 클럽 이용을 하였고, 만약 가지 못하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클럽에 다녀온 다음 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였고, 그로 인해 학업과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많다고 답했다. 클럽문화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질문의 기타에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간섭 없이 맘대로 놀 수 있어서 클럽을 간다는 대답도 있었다. 또한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생활패턴의 깨짐이라고 답하였다.

신체적 특성에서 춤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체중감소, 몸의 빠근함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골반과 허리, 다리에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긴다는 결과를 통해 하체를 이용해서 춤을 많이 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클럽문화가 일상생활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클럽문화가 부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문조, 윤옥경(2001).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비행 : 분석과 대응. 청소년학연구지, 8(1), 99-116.

김이정, 송강영(2013). 교양댄스스포츠 참여 대학생의 스트레스해소 및 학업성적 변화 탐색. 한국콘텐츠학회지, 13(1), 398-408.

박용민(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정민, 김영삼, 정홍숙(2005). 대학가 클럽웨어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5(2), 143-152.

이유진(2013). 스마트폰 의존유형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유진, 이영지, 전만중 등(2011). 요중 코티닌 농도를 이용한 클럽 이용자의 간접흡연 수준 평가. 영남의대학술지, 28(1), 45-53.
장세길(2004). 일상적 카니발 공간으로서 성인

나이트클럽 :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과 강화의 이중성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화저널21. 2013년 4월 8일 사회면 기사.
서울 SNS 오픈채널. 2012년 9월 28일 희망소통.